

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 사북팀

사단법인 역사문제연구소는 1986년에 설립된 민간 연구단체로서 역사학 및 역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역사문제연구소의 연구반인 민중사반은 다양한 전공 및 연구주제를 가진 이들이 모여 '민중적 관점'으로 역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민중사반 사북팀은 2016년부터 사북 지역과 사북항쟁의 기록 작업과 연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.

“서로가 맞고 진짜 했던 게 너무 억울하면서도 일단 우리가 서로가 경찰서에 가서 그러한 고초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, 그 참, 반감고 서로 그 만나면 반가워서 탁 그냥 손이라도 툭 쥐고 이랬어.”

- 이명득

“겨울에도 이런 공터에다 모여서 설거지 이고가 씻거야지. 하루 다 가 그러다보면, ... 내가 그러게 안 해 본 거 없다니까요. 내가 그러니까 몸조리도 못하고 골병이 다 들었고.”

- 장분옥

“나 인터뷰 와도 묻는 게 없더라구요. 안 묻고, ... 우리 아이들은 진짜 내 손바닥 안에서 정말 예쁘게 키웠어요. ... 남편이 암만 미워도 '나가야지'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 봤어.”

- 조순란

“아가씨 때는 너무 나서서 막 땀기고 막 사람들 웃기고 이야기도 잘했는데 ... 왜 그래 나가 가지고 날 고생시켰고 애들까지 고생시키고, 원망했죠.”

- 이옥남

사북항쟁
구술자료
총 2
서

1980년 사북 여성의 탄광살이와 항쟁 참여

구술 | 이명득 · 장분옥 · 조순란 · 이옥남

면담 | 김세림 · 김아람 · 문민기 · 장미현 · 후지타 타다요시

사북항쟁 구술자료총서 2

1980년 사북 여성의 탄광살이와 항쟁 참여

구술 | 이명득 · 장분옥 · 조순란 · 이옥남

면담 | 김세림 · 김아람 · 문민기 · 장미현 · 후지타 타다요시

도서출판 선인

면담자

김세림 | 연세대 사학과
김아람 | 한림대 글로벌융합인문학전공
문민기 | 고려대 한국사학과
장미현 |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'위안부' 문제연구소
후지타 타다요시 | 서울대 교육학과

섭외

사북민주항쟁동지회

지원

정선군, (재)3·3기념사업회, 국사편찬위원회

표지 그림



제작 | 화질령 (2018년)

작가 | 최승선 (1978년 강원 정선 출생, 서양화가)